

## 기독교적 관점의 창업정신의 모색

최무진 (계명대)

### I. 서론

2013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자본이나 단순한 노동보다 인간의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 지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선도형 경제로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예술·문화·기술 등 사람의 창의력과 경제가 융합되고 어우러진 새로운 산업을 통틀어 일컫는 기업과 산업적 차원의 개념으로 2000년대 들어와 영국 등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창조경제의 목적은 다양한 지식과 첨단 기술이 특정 업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융합됨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창의력과 추진력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 통제함으로써 지속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능력이다.

창업(start-up)은 실패할 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2013년 전국에는 약 1천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약 7만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인원도 188만명이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우리 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규정하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창업 투자 인력 기술 시설 입지 상장 인수합병 세제 등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생을 지원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청소년 창업교육, 교수 연구원 대학생의 창업활동 촉진, 1인 창조기업의 저변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10년 말에는 20,413개의 벤처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다(중소기업청, 2010). 이러한 제조업체와 벤처기업이 아닌 식음료 서비스업, 유통 등 서비스업종으로 가면 훨씬 많은 수의 창업이 매일 이루지고 그에 못지않은 폐업도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할 것이며, 성공적인 창업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도 연구되었다. 강판국(2004)은 막스 웨버, 슈페터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주요 기업들과 연계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가 정신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창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에 오종석과 이용탁(1999)은 환경의 불확실성

1)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http://www.agendanet.co.kr)

2)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home/file/webzine/14/kicox\\_webzine\\_14\\_01.html](http://www.kicox.or.kr/home/file/webzine/14/kicox_webzine_14_01.html)

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매출액, 경상이익,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지성권 등(2002)은 창업자의 특성, 외부적 지원, 조직의 특성, 마케팅 지향성, 경영전략유형, 환경 등의 변수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박동수와 구언회(2007)는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일한과 한주희(2009)는 벤처기업 창업자의 리더십(카리스마, 개별배려, 지적자극)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장수덕(2011)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을 기업수준의 기업가정신 활동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고, 유형별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벤처기업을 혁신 및 전략적 쇄신 중시형, 벤처링 중시형, 안정 중시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에 기업가, 환경, 전략, 조직 및 자원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인식과 김은비(2013)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속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성공적인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가정신은 미진한 편이다. 그 중에서 Goossen(2004)은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표준 모델, 영적 모델, 기독교적 모델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영성적 모형과 기독교적 모형의 차이점을 문헌을 기반으로 잘 비교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Goossen의 연구 결과를 보다 확장 및 개선하고자 한다. Goossen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을 표준적 모델, 영적 모델, 기독교적 모델로 각기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창업정신은 기업가정신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창업 과정이 마무리된 후 지속경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창업 정신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초기 창업 과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현저히 다르다. 둘째, 우리나라와 타 국가의 창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창업 문화가 현저하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창업정신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창업정신의 세속적 관점을 정리하고, 이들을 기독교 관점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창업정신의 구성개념을 기독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

본 연구는 창업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구분하였다. 모든 기업은 생명주기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은 창업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며 때로 생명을 다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일정 궤도에 안착한 후,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성장한다.

이종순과 지정택(1992)은 이전의 연구를 종합하여 기업의 발전단계를 창업기, 구축기, 성장기, 전환기로 나누었으며, 각 기간마다 창업자 또는 경영자의 특성이 해당 기업의 환경과 직면한 문제에 적합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병무(2009: 60)는 기업가와 경영자는 보는 시각과 역할 그리고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기업가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창조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의 체계와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에 따른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경영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하였다. 그는 1937년에 창업된 맥도날드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주요 기업가와 경영자를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창업형 기업가 맥도날드 형제가 새로운 대량 서비스 시스템을 창안하였으며, 이어 기업가 레이 크룩이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으며, 끝으로 글로벌 경영형 기업가 후지타 텐은 글로벌시장(특히 일본)에서 맥도날드의 현지화를 주도하면서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창업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이르게 되면 전문경영자의 도움을 얻어 커진 기업 규모에 걸 맞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경영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세대 벤처창업자 변대규 회장은 “매출 3000억원이었던 회사가 2005년 매출 6000억원으로 넘어서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열정과 주인의식이 강한 벤처도 아니고 시스템 경영이 제대로 구축된 대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 왜 중요한 지 미처 몰랐다. 벤처시절에는 재고나 영업관리를 대부분 수작업으로 했다. 하지만 생산기지가 유럽·중국·인도·폴란드 등으로 다변화하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방식에 한계가 드러났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배로 가야 할 자재가 비행기로 가든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어렵게 번 돈을 이처럼 눈 뜨고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했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논하되 성공적 창업정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창업정신은 특히 미래의 수요가 불확실하여 만일 실패할 시 손실이라는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혁신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조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복지적 안전망도 부실하고 초기창업자금과 경영컨설팅 지원이 원활하지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위험 부담이 높은 선택이다.

### III. 기업가정신의 세속적 연구

기업가정신의 세속적 연구는 표준적 관점과 영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Goossen(2004)). 표준적 관점은 전적으로 경영학 분야의 교수나 연구자의 기존 연구로부터 정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거나 다양한 전문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연구결과는 주로 학술지에 출간된 것으로써 학술적 문헌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i) 벤처기업의 경영적 성과와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ii) 벤처기업의 철학적, 심리적 근간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이것이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iii) 벤처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성권 등(2002)은 창업자특성, 외부적 지원, 조직의 특성, 마케팅 지향성, 경영전략유형, 환경 등의 변수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박동수와 구언희(2007)는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일한과 한주희(2009)는 벤처기업

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27/200803270111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27/2008032701117.html)

창업자의 리더십(카리스마, 개별배려, 지적자극)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최근 장수덕(2011)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을 기업수준의 기업가정신 활동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고, 유형별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벤처기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창업자 또는 리더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창업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문헌은 기업가정신의 표준적 관점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학술적 문헌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많은 책들이 기업가 정신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의 구성개념을 설명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미래 창업자들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 컨설턴트가 쓴 일부 저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서전적 성격이 강해 학술적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다수의 문서들은 저자들이 컨설팅 비즈니스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헌들은 상업적 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두 진영의 문헌들이 서로를 인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Goossen, 2004). 두 진영이 생성하는 지식들은 서로 상이한 채널을 통해 상이한 고객들에 의해 소비되는 관계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각양각색을 이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Michael Gerber가 쓴 「The E-Myth: Why Most Small Businesses Don't Work and What to Do About It」는 수백만부가 팔렸으며 수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CEO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책의 영향력에 힘입어 컨설팅 서비스, 도서 출판, 세계적인 강연 여행 등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을 다루는 학술적 문헌에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즉 기업가 정신에 대한 두 진영의 접근방법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적 관점은 표준적 관점과 달리 인류가 발달시켜온 보편적 도덕률과 인본주의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업적 문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종교적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보편적 선과 덕목(사회적 책임, 자기성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가들은 영적 관점의 기업가정신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표준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문헌을 이용하였으며, 영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로 상업적 문헌을 활용하였다.

## 1. 세속적 연구방법 #1: 표준적 관점

기업가는 미래에 있을 보상을 위해 현실의 위험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정의되어 왔는데 이는 독일 경제학자 Schumpeter(1934)의 노력에 기인한다. 1930년 중반에 슈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보다 새롭고 더 혁신적 기술로 현재의 기술과 일을 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소위 '창조적 자기파괴'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이후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들이 간헐적으로는 있었지만 이 주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기업가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확연해지기 시작한 1970~80년대 부터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이 무렵부터 창업을 통한 사업가의 길을 걷고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크고 작은 창업을 통한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용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불황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를 하면서 더 이상 평생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현상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창업이 보편화되면서 기업가들이 대량 출현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개인적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가들의 영향력은 계속 커져갔다. Drucker(1985)도 기업가가 주도하는 사회의 출현이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창업을 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초창기 연구자들은 창업자라는 개인에 관심을 가졌을 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구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초반에 연구자들은 성공한 창업자와 그렇지 못한 창업자의 유전적, 성격적 차별 요인을 찾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렇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중반에 발간된 피터 드러커의 저서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s and Principles」가 기업가 정신의 중심에는 ‘혁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논쟁이 개인적 특성에서 떠나기 시작하였다. 드러커는 “지금까지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마치 특별한 재능이나 성격, 변칙이는 영감을 가진 천재처럼 신비로운 것으로 간주해 왔지만 이 책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언제라도 조직할 수 있는 목표지향적 과업으로 정의”하였다(Drucker, 1985: 247). 이 정의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한 모호한 개념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재차 강조한 것이었다.

현재 교과서에 언급되는 ‘기업가정신’의 정의들은 저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회를 얻기 위해 과감히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문구가 자주 포함 된다(Lambing and Kuelhe, 2003: 32). Longenecker et al. (2003: 2)은 기업가를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이 필요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자율적 시장경제 시스템의 형성을 돕는 의사결정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창업정신’ 또는 ‘창업자’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점점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예를 들어 Coulter(2003: 6)는 기업가 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는 상관없이 혁신과 독창성을 통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채워줌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개인이나 그룹이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Dollinger (2003: 5)는 기업가 정신을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윤과 성장을 위해 혁신적 경제 조직 (또는 조직들의 네트워크)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Hisrich and Peters (2002: 10)는 기업가 정신을 “재무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금전적 보상이나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Timmons (2003: 47)는 기업가 정신을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기회를 찾고, 전인적으로 접근하며, 균형된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며, 행동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동적인 창업 프로세스의 핵심 주제들을 망라하는 본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다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아이디어를 넘어 기회가 주도하는 과정으로서 수요, 시장 규모, 수익률과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을 경우를 전제한다. 둘째, 혁신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선도 기업가나 혁신적 팀이 주도하는 과정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 3가지의 과정(추진요인)들이 균형적으로 잘 맞아 떨어질 때 창업 프로세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개인의 특성으로만 정의하기보다 동적인 경영환경의 총체적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업가 정신의 표준 개념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 (1) 창업에 요구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

이 능력은 초기 기업가 정신의 정의에서 발견되는 “창조적 파괴”에 잘 나타나 있다. 재무적, 인적 자원을 축적하는 능력이 결여된 창업자는 비행기 없는 조종사와 같으며 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 사실 이 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으므로 많은 창업자들은 “bootstrapping”이라 불리듯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벤처사업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나 미래의 소득인 퇴직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가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재단들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 선정 및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조성, 각종 창업경연대회 등이 그것이다.

### (2) 혁신과 변화를 시스템적으로 추구하는 능력

기업가는 시장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기회를 인지하고, 포착하고, 추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Martinez, 2003). 혁신과 변화는 특히 지속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가에게 이 변화란 삶의 한 부분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해야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기회를 잡기위해 그것을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 창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기업가는 반드시 박학다식한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 드러커(1996: 280)는 혁신을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로 보고 부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역량으로 보았다. 기업가는 혁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줄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는 소비재의 구매, 물류, 유통에 있어 끝없는 혁신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최저가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드러커(1996: 284)는 창업과정을 변화를 위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들이고, 경제적, 사회적 혁신을 가져올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혁신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성공적인 창업은 새로운 기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제조 서비스 시스템의 창안이 필요하며, 기존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이들의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 과업완수에 필요한 개인의 역량

벤처기업의 성공적 설립에는 개인이 지닌 탁월한 성취역량이 중요하다. 개인의 성취역량과 관련되는 요소들로서는 동기부여, 위험 인내도, 변화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능력, 기술적 능력, 자기주도성 등을 들 수 있다(Balabanis and Katsikea, 2003).

기본적으로 창업자는 스스로 조직의 오너가 되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가는 과업 완수에 대한 강한 집중력과 일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창업자들은 기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겠다는 동기보다 그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기만족과 사회적 이익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컴퓨터 보안회사 안랩을 창업한 안철수는 자신의 원래 직업인 의사를 그만둘 정도로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과 그 프로그램이 어려움에 처한 다수를 돕는 일에 만족하였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수많은 애플마니아를 만들 정도로 제품의 완벽

한 기능성과 매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는데, 그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아이작슨, 2011). 즉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공적 창업자들은 스스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뤄내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세속적 연구방법인 영적 관점은 창업자의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인간을 영성을 가진 동물로 보며 인간의 영적 능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신실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다른 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 (4) 핵심 역량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능력

성공적 창업자에게 필요한 또 다른 역량은 포착된 사업적 기회에 얽힌 위험과 보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이다. 신사업이 제공할 정확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가는 시장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다. Kaplan(2003)은 잠재적 기회를 분석할 때 밟아야 하는 5단계로써 첫째,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둘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특허신청 등), 셋째, 현금흐름분석을 한다, 넷째, 경쟁적 우위 분석을 위해 시장 분석을 수행한다, 끝으로 경쟁적 분석을 수행한다를 제시하였다.

창업자가 이러한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투자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창업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창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투자금액, 회수의 규모와 시기, 창업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업적 기회에 얽힌 위험과 보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의 경영학 교육과정들은 이러한 객관적 평가능력을 잘 교육하고 있지만, 때로 결말을 알 수 없는 사업적 기회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영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은 비전과 통찰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 (5) 성공에 필요한 개인적 습관개발 능력

창업에 적합한 성격이나 습관에 대한 문헌들은 매우 많다. 일부 문헌은 이러한 성격과 습관은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하며, 일부는 학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Isachsen, 1996; Miner, 1996). 일부 성격이나 습성이 창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란 습득한 후 습관화되는 기술들(skills)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Goossen, 2004).

Timmons(2003: 249-254)는 성공적인 기업가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아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i) 헌신과 결단력, ii) 리더십, iii) 기회지향성, iv) 위험, 모호함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v) 창의력, 자신감 그리고 적응력, vi) 탁월함의 추구이다. 이 특성들의 일부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들이다. McGrath and MacMillan (2000, 2-3)은 체질적 기업가(habitual entrepreneur)의 특성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기술을 들고 있다. 체질적 기업가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특성으로는 i) 열정적으로 기회를 찾으며, ii) 엄격한 절제(규율) 아래 기회를 추구하며, iii) 오직 최고의 기회만 추구하며, iv) 실행에 집중하며, v) 해당 분야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 표준적 관점의 한계

기업가 정신의 표준적 관점이 공통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성(spirituality)에 관한 것이다. 즉 인간 정신이 지닌 신비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일단 앞서 언급한 성공적 창업에 부합하는 일련의 요인들을 충족하면 기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훌륭하게 운영될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표준적 관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서 볼 때 중요한 인생의 가치, 삶의 의미와 요인들을 거의 다루지 않아 보편적 선과 도덕성을 추구하는 다수의 기업가들을 동기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새로운 차원의 요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영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2. 세속적 관점 #2: 영적 관점

오늘날처럼 종교적 다원주의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영성(spirituality)이란 절충적 수단을 동원해 제도화된 인프라(예: 종교 단체, 비영리 조직 등)가 아닌 개인적 노력으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가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교리적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체계적 인프라(제도, 조직, 예식 등)를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영성과 종교 사이에 있는 크나큰 스펙트럼의 차이가 존재한다. 종교란 제도와 조직이라는 틀 속에 가둘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이며 삶의 궁극적 관심사로도 볼 수 있다 (Gunn, 2003). Dawson (1998)은 종교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종교적 자각(religious consciousness)으로 보고 있으며, 종교가 오늘날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동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넓은 관점에서 종교를 보게 되면 종교와 영성의 차이는 상당히 좁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영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회적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 (1) 탈 제도화

지난 40년간 영성은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종교로부터 벗어나 개인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영성은 더 이상 제도화된 전통적 종교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성 운동은 종교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교리를 숨어내는 수단으로 볼 뿐 조직과 사회를 향한 의무, 신조 그리고 헌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제도화된 종교에서 이러한 인식과 해석의 변화는 1700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수의 대중적 인물들의 효과적인 설득은 영성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Herrick, 2003). 어떤 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종교의 속박적 요소(자유분방한 세속적 삶을 억제하는)들을 제거한 후 일터를 포함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트렌드로서 최근 10대, 20대의 젊은 계층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들의 가치관은 점점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The Barna Group, 2003).

종교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TV와 스마트폰과 같은 유비쿼터스 매체에 의해 상당히 손상되고 있다. 이런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계층들이 교회 예배와 유사한 체험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의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결과 지난 40년,



한국 교회는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회 출석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sup>4)</sup>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같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종교조직에 관심을 표명하였다.<sup>5)</sup> 그리고 여전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행동이론에 인간의 영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제도적 종교조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영성을 향한 관심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세속적 인본주의와 무신론

세속적 인본주의는 이미 오래된 트렌드이다. 비단 종교에서만이 아니라 세속적 인본주의는 믿음(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시각과 항상 갈등관계에 있는 세계관이다. 인본주의 기초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파와 같은 그리스 철학자와 고대 중국의 공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과 같은 외부 존재가 아닌 인간이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는 이론들이었다. 20세기에 이르러 과학자, 철학자, 진보적 신학자들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의 대안으로 인본주의의 확산을 위해 간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이론가들은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삶을 인도할 윤리적, 철학적 시스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다신론적 종교, 즉 초자연주의를 제거한 영성의 한 형태로 분류하였다.<sup>6)</sup> 지난 40년 동안 초자연주의를 유력한 철학적 관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비종교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7)</sup> 한편 우주물리학, 진화생물학 등 최신 과학기술의 괄목할 발전은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내어몰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무신론자들이 인간의 영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 (3) 포스터 모더니즘

포스터 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비교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중반에 기술의 발전과 세계 무역의 증대와 함께 부상된 사조였다. 국가 간 경쟁의 촉발로 야기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는 기존의 삶과 비즈니스 방식을 일시에 형클어 놓았다.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웨버는 다음과 같이 썼다(Ramachandara, 1996: 2-3). “현대 자본주의는 규율에 근거한 합리적 행동 시스템이었다. 그것의 주요 동기는 바로 궁극의 목표인 이윤의 지속적인 축적이었다.” 포스터 모더니즘은 계속 되어온 현대화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강도와 범위가 계속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현대성의 안정감을 훼손하고 결국에는 혼란만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Grenz(1996: 12-13)는 포스터 모더니즘이 확산되면서 인류의 진보에 관한 계몽주의적 신념이 폐기되었고 과거 세대의 특징이었던 낙관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고 하였다. 특히 포스터 모더니즘은 보다 나은 세상의 건설에 필요했던 지적 기초를 제공했던 과학적 방법을 통한 합리적 탐구 활동까지 폄하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Beckford(Dawson 인용, 1998)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지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증적, 합리적, 도구적 기준을 거부한다. 둘째, 비록 분열

4) (주)글로벌리서치, 2012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5) The spiritual nature of a human being (Nov. 2000) at <http://chiron.valdosta.edu/whuitt/col/summary/spiriti.html>.

6) Definition of secular humanism. at <http://groups.msn.com/agodfightforallreligions/general>

7) ibid.

과 절충(타협)이라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질적 의미의 코드와 체계로부터 나온 상징들을 묶으려고 한다. 셋째, 즉흥성, 분열, 피상성, 아이러니와 유희를 매우 찬양한다. 끝으로 압도적이거나 승리주의적 신화나 서사 또는 지식의 체계를 탐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 (4)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은 1960년대 많은 사람들이 기성 조직과 종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동양 종교에 심취하면서 생겨난 독특한 정신적 산물이다. 뉴에이지는 우주와의 신비한 합일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적운동으로서, 혹자는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조화와 발전의 유토피아 시대를 대망하는 영적 운동이다(Newport, 1998). 뉴에이지가 종교가 아닌 운동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활동들이 분산되고 조직적이지 못해 이를 표방하는 대형 건물이나 학교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신자와 실천자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영적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즉 설교나 종교적인 예배 대신 출판사가 주도하는 세미나, 컨벤션, 도서발행 그리고 비정규적 그룹들이 활동의 중심을 이룬다.<sup>8)</sup>

Watring은 뉴에이지 운동의 4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첫째, 인류는 하나의 우주적 실체(본질, 물질)가 되는 의식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일원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둘째, 이 의식의 전환은 '내면의 신성한 힘(divine within)'이라 불리는 차원 높은 자아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심리학적 기법과 도구들이 이러한 전환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정신의 잠재력은 이러한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보수주의자들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변환을 방해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4가지 개념 속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초월의 경지로 간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종교에 대한 뉴에이지 접근방법은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혼합주의는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 중에 좋은 것들만을 묶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종교 간의 이질적인 것 보다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묶는데 치중한다. 상대주의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제시하는 절대적 도덕적 기준은 없으며 대신 사회적 관습과 다양한 원천을 통해 보편적 도덕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sup>10)</sup> 모든 사람은 하나님(God), 초능력자(higher power), 위대한 불가사의(Great Mystery), 우주의 창조자처럼 신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업적 또는 개인적 역경에 부딪칠 때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 그 신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영감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Allen, 1995). 따라서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기독교의 구원론도 신에게 도달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Allen(1995: 134)은 또한 동양의 전통이나 기독교 모두 카르마(업보)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열매로써 보상과 벌을 받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뉴에이지에는 새로운 것은 없으며, 헉슬리가 얘기 하였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동양의 전통, 기독교, 전 세계의 모든 토착종교가 가르쳐 온 영원한 철학(Perennial Philosophy)이 바로 뉴에이지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여러 원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8) New Age at [http://www.religioustolerance.org/g1\\_n.htm](http://www.religioustolerance.org/g1_n.htm)

9) The "New Age" religion: In general. at <http://procinwarn.com/newagegeneral.htm>에 인용됨

10) Relativism. WorldIQ. at <http://worldiq.com/definition/Relativism>

### (5) 잠재력 확장 운동

잠재력 확장 운동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파생된 것으로 소상공인, 사업가 그리고 대기업에 뉴에이지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Newport, 1998). 이 운동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서(self-motivation) 출발하여 스스로에게 힘(self-power)을 갖도록 돕는 각종 세미나, 훈련 프로그램, 자료집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런 활동의 주역들은 "guru"라고 불리는 정신적 지도자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 영감, 경험을 보고 추종하였다. 수련자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가 발전적 힘(self-power)을 확인하는 연습이나 체험이 필요했는데, 토니 로빈스의 "fire walk",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피닉스 세미나, 자기 최면(self-hypnosis) 등이 도움을 주었다. 이들 지도자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한 횟수가 250 여회 이상이었으며 참여한 청중도 천여 명이 넘었다. 이벤트의 홍보를 위해 이들 지도자들은 강연 내용이 담긴 테이프나 책자 그리고 소식지들을 유료나 무료로 배부하기도 하였다. 잠재력 확장 운동의 옹호자들은 양심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들을 배격하고 오직 마음을 통제하고 닦는 일에 초점을 둔다.

요약하면 이상의 다섯 가지 트렌드를 기초로 기업가 정신의 영적 관점이 발전하였다. 영적 관점은 비단 개인의 명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Miller(1999)는 개인적 그리고 영적 가치가 합해질 때 창의력, 개선 프로세스, 고객 서비스, 기타 다양한 사업적 가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많은 기업가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향한 영적 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의 성공을 갈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삶이 그렇듯이 비즈니스 역시 신비롭고 영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터라는 곳을 인생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찾아가는 하나의 장(場)으로 생각하였다. 스스로를 영적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영적 능력은 지구상의 물질적 육체를 초월하여 삼라만상과 합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어 더 이상 그냥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닌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 영적 관점의 5가지 핵심 신념

첫째, 영성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 또는 서사(narrative)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 한다. 사람들은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신념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후기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사는 세속적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영적 욕구를 채워주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Colson and Pearcey, 1999). 지혜나 우주적 생명력의 거룩한 원천이 어딘가에 있다면, 개인은 더 이상 교회와 같은 중재자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 조직은 더 이상 교리를 선포하고 헌신을 받는 곳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은 교리와 믿음 보다는 공통으로 겪은 개인의 경험을 더 중시한다.

미국의 한 기업교육원(The Institute for Enterprise Education)의 미션은 “오늘날처럼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급격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업적 원칙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 학습문화를 창달하고 육성하고자 한다”<sup>11)</sup>로 되어 있다. 이 미션을

11) <http://www.entreplexity.ca>

위해 교육원은 의식적인 자기성찰 과정, 경험학습, 결단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있는 ‘기업의 정신’을 가르친다. 다시 말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발견하고 학습하며, 결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하다. 특히 청년들은 잘 알려진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정신을 이해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당 기업에 맞는 인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 또는 서사(narrative)를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이다. 자기소개서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인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정한 동기요인들과 합치되는 아이디어와 행동을 자신의 삶속에서 선별하는 절충적 과정이다.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명성이 있는 미국의 밥슨대학(Bobson College)이 1998년에 개최했던 영성과 비즈니스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인간정신(human spirit)”을 개인적 성취의 추구를 상징하는 본원적 단어로 보았다(Goossen, 2004, 40). 이 심포지엄에서 사람들이 정신(영)을 고양(高揚)하고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말할 때, 그들이 가진 특성의 신앙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가온 우주적(보편적) 영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였다. 즉 이 심포지엄은 어떠한 의무감(종교적인 것도 포함)도 없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개인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떠한 신조(doctrine)도 없이 존경받는 학문 집단의 배려로 개인화된 그리고 좋은 의미의 노력도 기업가 정신의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영적 관점의 두 번째 핵심 신념에는 우주에 대한 기계적 관점, 즉 우주의 운행 질서를 관장하는 창조주나 절대자의 힘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는 자연주의, 즉 자연적 원인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Colson and Pearcey, 1999). 지구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듯 우주는 일련의 보편적 법칙들에 의해 운행된다고 영적 관점은 생각한다. 우주적(보편적) 법칙들 중에 하나는 부지런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큰 부를 쌓으며, 많은 경우에 궁극의 영적 존재(supreme spiritual being)는 이러한 노력을 축복해 준다는 것이다. 혼합주의 맥락에서, 같은 의미의 법칙을 성경에서도 인용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5)가 그 중에 하나이다.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자가 인간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 베푸는 확실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보편적 법칙은 ‘모든 일이 스스로 잘 될 것’이라는 인간 중심적 생각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돈을 버는 것 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목적에 도달하는 일을 지지해줄 다양한 지원군(복, 우연, 행운 등)을 얻게 될 것이다.”(Allen, 1995, p. 29). 그러면서 신은 우리 각자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건강, 사랑, 마음의 평화,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작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영적 관점의 세 번째 핵심적 신념은 일을 통한 삶의 의미, 인생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영적 관점의 기업가 정신은 표준적 관점에서 언급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 보다 ‘당신은 누구인가?’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Gerber(1995: 135)는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떠한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이 되어 보기를 원하는가?, 누구를 닮고 싶은가? 당신의 최우선 목표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맥에서 “최우선 목표”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비즈니스가 최우선 목표 또는 인생의 의미를 얻는데 종착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Gerber는 “전략적 목표란 당신이 정한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료하게 서술한 문장이다”라고 하였다.

Leider(1997: 3)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각자에게 부여된 독특한 재능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책을 집필하였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은 바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찾아가도록 인도되고 있다. Leider는 이 개념을 인생의 목적과 직관(intuition)으로 확대하였다. “목적은 우리의 직관에 좌우된다. 직관이란 우리를 목적으로 이끄는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와 같다. 직관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감각, 즉 육감(the 6th sense)이다. 때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목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 목표를 향해 행동한다는 것은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나의 일을 합치시키는 것, 즉 직업적 소명이다. 소명이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한다.” (Leider, 1997: 3-4). 이상에서 볼 때 영적 개념에는 혼합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포스터 모더니즘이 그대로 배어 있다.

영적 관점의 네 번째 신념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스스로 찾아가는 개념이다. Turner(2002)는 “비즈니스란 현재도 미래에도 자신의 소명을 표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이다.”고 하였다. 인생의 목적은 타인을 돕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는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일 수 있다. 창업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사업화하기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Leider(1997: 113-114)는 “우리 모두에게는 천부적 능력이나 성향이 있으며 남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이다. 이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영적 관점의 다섯 번째 신념은 내면의 잠재력을 찾아 스스로 성취해 가는 것이다. 즉 성공을 쟁취하고, 꿈을 성취하고,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사람의 능력 속에 이미 있으므로 끊임없이 자신의 내적 자원을 갈고닦아 이것들을 성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끄집어 내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현실화(self-actualization)의 힘, 즉 어떠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목적을 성취해 간다는 이론은 Maslow의 욕망의 계층 이론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Huitt, 2003).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발간되고 때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자기경영서(예: 2008년 앤서니 라빈스의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들도 스스로의 잠재력을 찾도록 코칭하는 것들이며, 실제 국내의 많은 교회학교의 교재 제목에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를 거리낌 없이 쓰기도 하였다.

영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다수의 상업적 자기개발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다. 실제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학술적 논문 보다는 이러한 상업적 서적, 외부의 컨설팅기관,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나 리더십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의 표준적 관점, 영적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 실업인들조차 창업정신의 영적 관점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IV. 기독교적 관점

‘창업정신’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 기독교적 관점은 일종의 지적 프레임워크 또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세계관이란 “세상에 대한 신념(신앙)의 총합이며, 일상의 결정과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큰 그림”으로 정의할 수 있다 (Colson and Pearcey, 1999: 14).

기독교적 관점과 영적 관점은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다.

첫째, 영적 관점에서 바라본 창업 정신은 자신의 이야기 또는 서사(narrative)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뿌리를 둔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과 사람의 창조,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 구원의 은혜를 포괄하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신앙인은 기독교(Christianity)를 진리를 아우르는 모든 것, 즉 그 모든 것의 뿌리로 보며, 궁극적인 실체로 간주한다(Colson and Pearcey, 1999: 15). 결과적으로 영적 관점의 스스로 만드는 개인의 이야기는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 이야기의 또 다른 관점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는 구원관에 근거한다. Grenz (1996: 165)는 “기독교를 여러 신앙 중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강등할 수 없다. 복음은 태생적으로 사명을 전하는 광대한 메시지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크리스천들만이 아닌 모든 이에게 좋은 뉴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은 기독교 집단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신앙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어 영적인 관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니케아 신조(Nicene Creed)로 대변되는 기독교 신조는 광범위한 영역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A.D. 325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니케아 신조는 미국의 장로교단,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대부분 개신교회(사도신경으로 고백)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지난 17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믿고 고백해 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서사)라 할 수 있다. 창업정신의 기독교적 관점은 크리스천들에 의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졌으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지만, 일시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의 이야기, 즉 영적 관점의 창업정신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을 예로 들어보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장 12절). 크리스천 사업가는 직원을 해고할 때도 성경의 ‘황금률’을 마음에 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접근해야 한다(Lagace et al., 2002).

둘째, 영적 관점의 창업 정신은 사람이 만든 법에 따라 행동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며,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 이웃을 향한 판단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십계명을 가르쳤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에 이 십계명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였다. 그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함이로라.”(마태복음 5장 17절)고 하셨다. 특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눈에는 눈, 원수사랑, 자선, 기도, 금식, 타인을 향한 판단과 같은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라 하였나이다.”(누가복음 10:27)라고 말씀하셨다. 기독교 법은 현실의 대부분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영적 관점은 모호한 것들이 많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기독교 원리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신자가 이것을 자신의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정한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발견해 가는 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Blanchard et al., 1999). 예를 들어, 게임개발업체를 창업하고자 할 때 자신이 만든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될 유해성을 먼저 생각하는 창업자와 그렇지 않은 창업자가 선택하는 게임아이템과 게임을 판매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창업자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영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이 큰 대조를 보인다. 창업자는 사업적 기회를 잡기 위해 동업자, 직원, 투자자와 타인들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영적 관점은 스스로의 진보나 발전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기독교적 관점은 청지기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기반으로 한다(Greenleaf, 1977). 청지기 리더십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10:44)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 영적 관점과 구별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충고에서 비롯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립보서 2:3-4) 요컨대, 기독교 관점의 창업정신은 자기중심성에서 멀어지며, 청지기 리더십을 통해 외부로 확장되는 반면, 영적 관점은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넷째, 소명(calling)과 삶의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적 관점과 영적 관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Novak(1996: 39)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스스로를 위한 지식, 정체성, 성취, 개인의 행복 추구[이 모든 것은 사실 영적 관점에 기여한 요소들이다]는 수천 년 동안 전통적인 유대인-기독교인-무슬림의 소명의식과 교묘하게 잘 섞여 있어 이를 따로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영적 관점은 창업자가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식으로 소명을 다루는 반면, 기독교 관점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일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등 보다 폭넓게 소명에 접근한다.

성경은 소명(부름)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에베소서 4:1-4) 이 구절은 기독교인은 모두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언급한 것으로 특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다. 즉 크리스천은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섬김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Warren, 2002).

Packer(1990: 25)는 소명과 비즈니스가 충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창업자나 전문 경영인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절제와 인내심을 요구한다. 크리스천 실업가는 친밀하고, 겸손하고, 신실하며,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인품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 정직하고 솔직한 인간관계를 통한 투명한 경영의 추구, 의와 사랑과 지혜라는 성경적 기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끊임 없이 성찰하는 일이 요구되는 덕목들이다. 부정과 부패가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우리의 조직 문화 속에서 기업가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처세술이나 노하우로 할 수 없는 전인격적인 것들이다.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은 풀타임 목회와 마찬가지로 귀한 부르심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보상도 받고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그것들이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에 Smith(1999)는 소명의 3가지 단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일반적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하며, 구체적 소명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한 직업을 통해 받는 것이며, 즉각적 소명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 삶과 일에 대한 Smith의 기독교적 관점은 노동 신학, 직업 신학, 자아(self)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크리스천의 바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함과 고귀함 그리고 탁월함의 관점에서 맞춰져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직업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sup>12)</sup>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다. 셋째, 성경은 각 사람의 행동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과 행동들은 하나님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Smith는 ‘직업’과 ‘소명’을 구분하고 있다. ‘직업(vocation)’이라는 단어는 앞서 언급한 소명의 3가지 의미들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며, 크리스천에게는 ‘직업’이 ‘소명’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에게 현실의 직업은 소명인 것이다. 반면 영적 관점은 직업과 일을 통해 개인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요약컨대, 기독교적 소명은 개인의 모든 삶에 관한 것이지만, 영적 관점은 일과 관련된 과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이 세속적 관점들과 차별화되는 큰 특징은 목적에 도달하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고 하셨다. 기독교인에게 창업이란 소명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남 속에서 부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성취라는 것도 구원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로 봐야한다.

다섯째, 크리스천 창업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즉 그이 섭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확고한 목적을 가졌고, 소명에 대한 확신도 있으며, 주변의 동역자들이 이를 확인해 주는 상황임에도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미뤄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Waltke, 1995). Waltke(1995: 153-155)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두뇌를 주셨으며 그것을 선한 일에 쓰기를 기대하신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은 성경, 하나님이 순결케 한 마음, 지혜로운 자의 조언,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는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빠르고, 논리적이며 하나님이 빠져버린 절차를 거쳐 모든 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 이윤과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하는 것을 잘한 결정으로 생각하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을 논리보다 우선시 하며,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선시 한다.

끝으로 기독교적 관점의 여섯 번째 신념은 성공에 이르는 힘이 스스로의 도움(self-help)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도움을 통해 온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로로 한 하나님에 둔다. Ramachandra(1996)에 의하면 성경적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현시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전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초점은 자기 자신 또는 이웃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2) Smith, p. 25.



통해 얻는 힘에 있다. 이는 빌립보서 4장 13절(“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잘 드러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2가지 세속적 관점의 창업정신(표준적 관점, 영적 관점)을 검토하였으며, 이 어기독교적 관점의 창업정신이 영적 관점과 다른 점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이 크리스천들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유효한 이론임을 문헌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오늘날 사회적 가치관이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함에 따라 영적 관점의 창업정신과 기독교적 관점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관점의 창업정신을 세속적 관점과 구분하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기도 하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도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창업정신의 표준적 관점을 접하게 되며, 때로 사실교육기관의 세미나나 자기개발서를 통해 영적 관점의 창업정신을 접하게 되지만 기독교적 관점의 창업정신을 듣는 기회는 거의 없다. 경영학 교육에서 배우는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어디까지나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휴머니즘, 즉 기업과 경영자가 지켜야 하는 인간중심의 보편적 도덕률을 가르쳐줄 뿐이다. 크리스천들이 교회 학교, 성경공부, 개인적 QT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정립에 대한 법을 공부하는 기회를 갖지만 정작 창업을 하려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기독교 관점의 창업정신을 가르쳐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터 잡고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창업과 경영의 기회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세속적 기업들과 경쟁을 하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동기부여하며, 통제하는 일에 있어 기독교적 관점의 창업정신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경영학자, 기독교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 교회가 이 일을 등한시 해 왔다. 따라서 교회학교의 교재나 신학교의 커리큘럼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독교적 창업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영적 관점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크리스천 기업가나 리더들에게는 매우 유효한 창업정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때로 기독교 관점의 창업정신 또는 기업가정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온정주의로 흘러 적시에 혁신과 변화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할 확률이 높은 감성적 이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정신의 표준적 관점에서 언급한 ‘혁신과 변화를 시스템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은 기독교 관점의 창업정신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은사로 봐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태복음 10장 16절)는 말씀처럼 교활한 ‘이리’ 같은 시장경제에서 지혜롭게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교회와 같은 비영리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회 측면에서 혁신자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아원, 방과 후 학교, 경로대학,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탈북자지원센터, 무료급식센터,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하는 일, 카페를 통해 저렴한 음료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일도 섬김과 나눔을 통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판국 (2004). “벤처기업과 기업과 정신.” 『한국인사조직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33-52.
- 박동수, 구언희 (2007).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2979-3011.
- 아이작슨, W. (2011). 『스티브 잡스』. 안진환 역. 민음사.
- 오종석, 이용탁. (1999).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2. 285-307.
- 이일한, 한주희. (2009). “벤처기업 창업자의 리더십 영향력에 대한 마음챙김 상호작용 효과.” 『대한경영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3-793.
- 이종순, 지정택. (1992). “사사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발전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7. 83-109.
- 장수덕. (2011).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차이: 기업수준에서의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3). 49-73.
- 정병무 (2009). “기업발전단계에 따른 3영역의 기업가상.” 『전문경영인연구』. 12(2). 57-75.
- 정인식, 김은비 (2013). “글로벌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28(3).
- 중소기업청. (201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0~2010년.
- 지성권, 김정교, 최종서, 신종국, 최수형. (2009). “벤처기업의 성공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33. 119~150.
- Allen, M. (1995). *Visionary business: Entrepreneur's guide to success*. Novato, CA: Mew World Library.
- Balabanis, G. I. and Katsikea, E. S. (2003). “Being an Entrepreneurial Exporter: Does It Pa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2(2). 233-252.
- Banks, R., & Stevens, R. P. (Eds.). “Calling/vocation.”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online) at <http://www.ivmdl.org/cbec.cfm?study=121>
- The Barna Group, Ltd. (2003, Sept. 24). Twentysomethings struggle to find their place in Christian churches. *The Barna Update* [online]. Available: <http://www.barna.org>.
- Blanchard, K., Hybels, B., & Hodges, P. (1999). *Leadership by the book: Tools to transform your workplac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 Colson, C. W. & Pearcey, N. (1999). *How now shall we live?*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 Coulter, M. (2003). *Entrepreneurship in action*.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Drucker, P.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s and principles.” In *The Executive in Action* (1996) 243-518. New York: Harper Business.
- Gerber, M. (1995). *The e-myth revisited: Why most small business don't work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HarperCollins.
- Greenleaf, R. K. (1977). *Servant Leadership: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Ramsey, NJ: Paulist Press.
- Goossen, R. J., “Entrepreneurship and The Meaning of Life,” *Journal of Biblical Intergration in Business*, Fall 2004, pp. 21-74.

- Gunn, T. J. (2003). "The complexity of religion and the definition of "religion" in international law."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6. 189–215.
- Herrick, J. A. (2003). *The making of the new spirituality: The eclipse of the Western religious tradi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Huitt, W. G. (2003, April). Hierarchy of needs (online). at <http://facultyweb.cortland.edu/andersmd/MASLOW/HOMEPAGE.HTML>
- Isachsen, O. (1996). *Joining the entrepreneurial elite: Four styles to business success*. Palo Alto, CA: Davies Black.
- Kaplan, J. M. (2003). *Patterns of entrepreneurship*.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Lagace, M., Silverthorne, S., & Guild, W. (April 22, 2002). Does spirituality drive succes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Knowledge (online). at <http://hbswk.hbs.edu>
- Lambing, P. A. and Kuehl, C. R. (2003). *Entrepreneurship*.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Leider, R. J. (1997). *The power of purpose: Creating meaning in your life and work*.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 Longenecker, J. G., Donlevy, L. B., Calvert, V. A. C., Moore, C. W., & Petty, J. W. (2003). *Small business management: An Entrepreneurial emphasis* (2nd Canadian ed.). Scarborough, ON: Thomas Nelson Canada.
- Martinez, R. J. (2003, Fall). "Teaching strategic management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Biblical Integration in Business*. 69–97.
- Miller, W. C. (1999, Oct./Nov.). Spirituality, creativity, and business. *The Inner Edge*, 2(5) at <http://www.workplacespirituality.com>.
- Miner, J. B. (1996). *The 4 routes to entrepreneurial success*.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 Novak, M. (1996). *Business as a calling: Work and the examined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 Ramachandara, V. (1996). *Gods that fail: Modern idolatry & Christian Miss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Schumpeter, J.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G. T. (1999). *Courage and Calling: Embracing Your God-given Potenti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Timmons, J. (2003).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McGraw Hill.
- Turner, C. (2002).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562. *Innovative Leader* (online), 11(10). at <http://www.winstonbrill.com>.
- Waltke, B.(1995). *Finding the will of God*. Gresham. OR: Vision House Publishing.
- Warren, R. (2002). *The Purpose of Driven Life*. Grand Rapids, MI: Zondervan.
- Weber, M. (1958).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 Parsons, Trans.). New York, NY: Scribner.